

# 加味補中益氣湯과 子宮下垂의 活用에 관한 考察

宋鍾錫·柳同烈\*

## Literary Study on the BojungiggiTang and prolapse

Song Jong Seok, Yoo Dong Youl

Dept. of Ob & Gy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

Korea has recently seen reduction in Gihyeolbuojog(氣血不足)-related woman disease due to low birth rate and elevated nutritional intake. In particular Uterine Prolapse usually result from malnutrition in days of need and also from earlier resumption of social activity after childbirth. Nowadays some women still develop Uterine Prolapse, of which the reasons are earlier resumption of social activity after childbirth, malnutrition due to harsh diet, contaminated food, and Gihyeolbuojog by stress. This research has determined that GambojungiggiTang would be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f those diseases.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mbination of BojungiggiTang with Sugjhwang(熟地黃)and Noggaggyo(鹿角膠), which were used for Sinsubujog(腎水不足) and IghyeolbojeongJe(益血保定劑). Respectively, produced satisfactory treatment outcomes for prolapse.

### 1. 緒論

最近 우리나라로 低出產과 先進國 水準의 營養攝取로 20-30년 전 보다는 氣血 不足으로 인한 女性疾患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子宮下垂症는 貧困한 時期에 多產과 產後 營養攝取不足, 虛老한 老人性 子宮下垂가 많이 發生하였는데 現在에는 出產候 早期活動과 다이어트로 인한 營養缺乏, 偏食, 公害飲食, 스트레스로 인한 氣血不足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子宮下垂와 补中益氣湯에 补血作用과 腎水不足에 使用하는 熟地黃과 益血補精劑로 使用되는 鹿角膠를 加味한 加味補中益氣湯의 子宮下垂에 대한 활용에 관해 論하려고 한다.

### 2. 本論

일반적으로 子宮은 骨盤底의 筋膜層과 기인대, 광인대와 선골자궁인대 및 원인대, 子宮後壁에 작용하는 腹腔內壓의 支持를 받는다. 子宮下垂 혹은 子宮脫이란 下腹部의 筋肉과 鞣帶가 너무 늘어나서 생기는 것으로 子宮이 정상위치에서 離脫하여 膜內로 솟아있는 경우로, 대개 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子宮脫은 대부분의 경우 多產婦에서 出產에 의한 損傷과 2, 3도의 會陰破裂, 會陰部切傷의 未縫合이나 產褥期 初의 後遺症의 결과로 생기는데 上記原因 因子에 의해 骨盤底 및 기인대의 損傷과 過伸張이 招來되어發生한다.<sup>1)</sup> 子宮脫 여성들은 膜의 앞, 뒷쪽에 둉 어리가 있거나, 膜外로 突出되어 있으며 骨盤 부위가 막연히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등의 痛症이 심해지며 排尿時 痛症을 느낄 수 있다. 排便障礙나 性交時 痛症이 있을 수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 교신저자 유동열, ydy1010@dju.ac.kr  
· 채택일 : 2005년 12월 6일

있을 뿐 아니라 웃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나오는 등 경우가 있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sup>2)</sup> 子宮下垂는 정도에 따라 子宮頸部가 膀胱內에 있을 때 1도, 子宮頸部가 치녀막령까지 내려 왔을 때 2도, 子宮頸部가 치녀막령 밖으로 나왔을 때를 3도, 子宮頸部가 치녀막령으로 완전히 빠져 나왔을 때 4도 또는 全子宮脫出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4도를 3도에 포함시켜 子宮脫出 3도라고 표기한다.<sup>3)</sup> 營養狀態不良, 身體的으로 건강하지 못함, 肥滿, 반복적으로 分娩하는 경우(妊娠과 分娩이 너무 잦으면 膀胱口가 약해짐), 排便時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것은 子宮脫을 誘發시키는 危險要因이 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分娩時 下腹部筋肉의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하거나 근육힘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 수 있다.<sup>3)</sup>

子宮脫에 대해 韓醫學에서는 「諸病源候論<sup>4)</sup>」에서 始初로 “陰挺出 下脫”로 表現되고 있으나 方<sup>5)</sup>은 “生腸不收”“子宮不收”로 龔等<sup>6~7)</sup>은 “陰中挺出”로 康等<sup>8~10)</sup>은 “陰瘡”로 傳等<sup>11~12)</sup>은 “陰挺”이라 하여 表現이 多樣하다. 武<sup>13)</sup>은 “陰挺 下脫”이라하여 陰挺 陰脫을 같은 질병으로 論하고 있으나 그이후의 文獻에서는 후 같은 질병으로 혹은 다른 질병으로 언급되어 있는 바 宋<sup>2)</sup>은 “陰挺은 Bartholin 선 囊腫 線炎 등이고, 陰脫은 子宮脫及膀胱脫이다”하여 陰挺과 陰脫을 다른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姜等<sup>14)</sup>은 陰挺과 陰脫을 동일 질환으로써 子宮下垂로 보고 있다. 陰挺 陰脫의 원인은 크게 氣虛型, 腎虛型, 濕熱下注型으로 辨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sup>15)</sup>

### 亞 陰挺·陰脫의 痘因 分類

	原 因	頻度
氣虛型	分娩用力(臨產用力·產用力過度)	50.63 %
	因趣產·努力·努嚙太過·舉重	
	坐產·努力·舉重	
	臨盆太早·努力太過	
	因產前努力傷氣	
	元氣不足(元氣虛弱, 元氣下陷)	
	氣虛下陷(氣虛)	
	氣虛血弱(氣血虛弱)	

腎虛型	氣下冲	34.18 %
	胞絡損傷	
	子腸虛冷(宿有虛冷)	
	帶脈虛脫	
	房事太過	
	淫慾不遂 非理所爲	
濕熱下注 및 其他	濕熱	15.19 %
	膀胱濕熱	
	七情鬱火 濕熱下注	
	熱鬱下墜	
	肝經濁氣(肝火濕熱)肝鬱	
	多服熱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歷代 文獻 49권을 중심으로 陰挺 陰脫에 관해 考察한 論文<sup>15)</sup>에 따르면 전체 痘因 중 약 50.63%가 氣虛型인 것으로 나타났다. 陰挺 陰脫의 원인을 氣虛型으로 技術한 文獻은 다음과 같다.

### 1) 『婦人良方大全<sup>16)</sup>』

婦人陰挺下脫~或因胞絡損傷 或因子臟虛冷 或因分娩用力所致愚按前症 當升補元氣爲主  
若肝脾鬱結 氣虛下陷~補中益氣湯  
若肝火濕熱 小便澀滯~龍膽瀉肝湯  
一婦人 陰中突出 如菌 四圍腫痛 小便頻數 內熱晡熱似癢似痛 小便重墜 此肝脾鬱結，蓋肝火濕熱，而腫痛，脾虛下陷而重墜也 以補中益氣加山梔 茯苓 車前子 青皮以清肝火 升脾氣，更以加味歸脾湯 調理脾鬱

### 2) 『萬氏婦人科<sup>17)</sup>』

產後子宮脫出~其人素虛 產時用力努費太過 以致脫出  
自不能收也~補中益氣湯

### 3) 『醫學入門<sup>7)</sup>』

子宮脂膜休惡~產後下一物如合鉢狀 有二岐者 子宮也補中益氣湯加減收後 以四物湯調理  
產後下一物如帕 約重斤餘者 因臨產努投或 肝癟所致 有粘不得上者 乃脂膜無妨~補中益氣湯  
陰中挺出 條尺許如蛇 痛墜出水 溺瀉者 朝服補中益氣湯，晚服龍膽瀉肝湯  
陰戶突 因勞力者 血虛四物湯加龍骨  
氣虛補中益氣湯

4) 『萬病回春<sup>6)</sup>』

產後

產後生腸不遂 皆由氣血虛弱 所以縣下 但養氣和血  
 其物自收~補中益氣湯  
 但小便頻數 患處重墜 此元氣虛而下陷也~補中益氣  
 湿

5) 『東醫寶鑑<sup>9)</sup>』

陰挺陰脫

癆產在婦人則陰戶突出 曰陰癆~馬蘭花丸  
 陰中突出 如菌如鷄冠 四圍腫痛 乃肝鬱脾虛下陷 先  
 以補中益氣湯加梔子 茯苓 車前子 青皮 清肝火升脾  
 氣更以 歸脾湯加梔子 茯苓 川芎 調理  
 陰挺出一條尺許 痛墜尿澁 朝服補中益氣湯 晚服龍  
 膽瀉肝湯  
 陰中生一物 漸大 牽引 腰腹膨痛 此因多服 热藥 或  
 犯非理房事 兼意淫不遂 名曰 陰挺~洗心散

6) 『景岳全書<sup>18)</sup>』

陰挺

婦人陰中突出 如菌如芝 或挺出數寸 謂之陰挺 此  
 或因胞絡損傷 或因分娩過勞 或因鬱熱下墜 或因氣  
 虛下陷下脫 大都離當 以升補元氣固瀆真陰為主 如  
 陰虛 滑脫者(固陰煎 秘元煎)氣虛下陷者(補中益氣  
 湿 十全大補湯) 因分娩過勞氣虛者(壽脾煎 歸脾湯)  
 鬱熱下墜者(龍膽瀉肝湯 加味道遙散)

7) 『濟陰綱目<sup>13)</sup>』

論陰挺下脫

大全云 婦人 陰挺下脫 或因胞絡傷損 或因子臟虛冷  
 或因分娩用力所致  
 薛氏曰 陰挺 下脫 當升補元氣為主 若肝脾鬱結 氣虛  
 下陷用補中益氣湯 若肝火濕熱 小便澁滯用龍膽瀉肝  
 湿

8) 『醫學心悟<sup>19)</sup>』

婦人陰疾

婦人陰疾 前陰諸疾也 有陰腫 陰痒 陰瘡 陰挺 下脫諸  
 症 其腫也 或如菌或如蛇如帶如鷄冠 種種不一 推  
 其因 總不外於濕熱也 古方九味蘆薈丸主之 若兼怒

動肝火 佐以加味道遙散 若肝經濕熱極盛佐以 龍膽  
 瀉肝湯 若脾虛氣虛 中氣下陷佐以 加味補中益氣湯  
 若思慮傷脾 脾氣鬱結 佐以 加味歸脾湯 若腎水不足  
 佐之六味丸加歸芍

夫此證 雖屬濕熱而 元氣虛弱者多

9) 『醫宗金鑑 婦科心法要訣<sup>20)</sup>』

陰挺證治

陰挺下脫則癆症 突物如蛇 或如菌 濕熱腫痛 弱赤澁  
 氣虛重墜便長清 氣虛補中益氣湯 濕熱 龍膽瀉肝湯

10) 『濟衆新編<sup>8)</sup>』

婦人陰門諸疾

陰戶突出 如菌 四圍腫痛 或陰挺尺許名陰癆 肝鬱脾  
 虛 先以補中益氣湯加 更以歸脾湯加 或 龍膽瀉肝湯  
 或 柴胡四物湯

11) 『類證治裁<sup>21)</sup>』

產後

產後陰脫 努力所傷也 以當歸人蔘湯升之 生腸不收  
 虛而滑也內服芎歸蔘著升麻 有產後陰戶下一物 如手  
 怨丹溪云 肝癥以蔘著歸升麻升舉之  
 前陰諸疾(陰挺)

婦人陰中挺出數寸 如菌如芝 因損傷胞絡 或臨產用  
 力所致 以升補元氣為主(補中益氣湯)

文獻에서 보이듯 氣虛型 陰挺 陰脫의 경우 补中  
 益氣湯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 补中益氣湯은  
 A.D.1232年 元代의 李東垣의 東垣十種醫書<sup>22)</sup>에  
 처음으로 收錄된 處方으로 飲食失節이나 寒溫不  
 適으로 脾胃가 傷한 境遇와 喜怒憂恐과 勞役過度  
 元氣가 耗損되어 陰火가 相沖되므로서 氣高而喘  
 身熱而煩 脈洪大 頭痛 或渴不止 皮膚不姪風寒而  
 生熱 等 證에 使用되었고 그 후 많은 醫書 등에  
 收錄 되어있으며 补氣之劑로 首位에 있고 그 應  
 用範圍도 자못 廣範하다. 本方의 適應症은 飲食  
 失調 寒溫不適 傷脾胃 喜怒憂恐 勞役過多 耗損元  
 氣 氣高喘息 身熱心煩 懶言 惡食 脈洪大 頭痛 或  
 渴不止 或陽虛自汗 皮膚不姪 風寒 生寒熱 等이  
 다. 补中益氣湯은 勞倦하여 脾機能을 傷하여 消

化가 不良하고 陽氣가 下陷하여 陰中發熱을 治하는 陽劑가 된다. 대개 風寒은 外傷하여 그 形이 有餘가 되고 脾胃는 內傷하여 그 氣가 不足이 된다. 그러므로 內經의 勞者를 過하고 損者를 益한다는 뜻을 委아서 苦寒한 藥을 물리치고 甘溫한 品을 用하여 黃芪의 甘溫으로써 氣의 本인 肺를 补하고 皮毛를 護하여 表를 固하고 自汗을 至하여 君으로 하고 脾는 肺의 本이므로 人蔘 甘草의 甘溫으로써 補脾益氣(人蔘) 和中瀉火(甘草)하여 臣으로 하고 白朮의 甘溫으로써 燥濕健脾하고 當歸의 甘苦率溫으로써 行血養陰하여 佐로 하고 陳皮의 辛苦溫으로써 通利하고 升麻의 甘苦寒과 柴胡의 苦寒으로써 前者로는 胃의 清氣를 升舉하고 後者로는 膽의 清氣를 提上하여 陰濁이 降한다. 生薑의 辛溫과 大棗의 甘溫으로써 薈衛를 和하고 腸理를 開하여 津液을 致하는 諸虛不足을 보한다.<sup>22)</sup> 무릇 脾胃가 機能이 不足하여 喜甘惡苦, 喜補惡攻, 喜溫惡寒, 喜通惡滯, 喜升惡降하고 喜燥惡濕하는 此方이 가장 適合하고 다만 肝腎에 馬땅하지 않다. 대개 下에 陰虛한 者는 더구나 가장 禁忌한다. 만일 兩尺脈이 虛微하거나 腎水가 枯渴하거나 命門火衰한데 此方을 誤用하면 마치 大木이 훈들리는데 그 根을 撥함과 같다. 此外에 皮膚가 不固하여 汗이 不斂하거나 或外로 表邪가 없고 陰虛發熱되거나 或 陽氣가 無根하여 格陽하거나 或 脾肺가 虛甚하여 氣促이 喘과 같고 或命門火衰하여 虛寒泄瀉하거나 或 水虛火吐하여 吐血衄血하거나 或 四肢가 厥逆하여 陽氣가 虛脫코자 하는 者는 一切 服用하지 못한다. 補中益氣湯은 일체의 清陽이 下陷되었거나 中氣가 不足하여 오는 諸證을 치료하며 脾主升清의 生理를 바탕으로 胃氣(소화기능)를 활발하게 하고 면역기능의 촉진(補血이 아닌 补氣의 관점)작용이 있고 아울러 평활근수축, 소염의 效가 있다.<sup>23)</sup> 여기에 熟地黃과 鹿角膠를 加하여 补血 滋陰 腎水不足 生精血 补五臟 通穴脈 益氣力과 补精 补肝腎을 도모하는 加味補中益氣湯의 약물구성은 다음과 같다.

## Ⅱ. 加味補中益氣湯의 藥物構成

藥材名	學名	重量
黃芪	Astragali Radix	15g
人蔘	Ginseng Radix	10g
白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10g
甘草	Glycyrrhizae Radix	5g
當歸身	Angelicae gigantis Radix	10g
橘皮	Pericarpium Citri Nobilis	6g
升麻	Cimicifugae Rhizoma	3g
柴胡	Bupleuri Radix	3g
熟地黃	Rhizoma Rehmanniae	10g
鹿角膠	Colla Cornus Cervi	10g
Total amount		82g

加味補中益氣湯 構成藥物의 藥理는 다음과 같다.<sup>24-27)</sup>

### 1) 黃 茴 =

補氣升陽 固表止汗 托毒排膿 利水退腫 小兒百病

『本經』 “主癰疽久敗 瘡排膿止痛 大風癩疾 五痔鼠瘻 补虛 小兒百病”

『日華諸家本草』 “助氣 壯筋骨 長肉 補血 血崩帶下”

『珍珠囊』 “治虛勞 自汗 補肺氣 實皮毛 益胃氣”

『本草衍義補遺』 “大補陽虛自汗 若表虛有邪 發汗不出者 服此又能自汗”

『本草備要』 “生用固表 無汗能發 有汗能止 溫分肉 實腠理 瀉陰火 解肌肉 炙用補中益元氣 溫三焦 壯脾胃 排膿內托 托癰成約”

### 2) 甘 草 =

補脾益氣 清熱解毒 潤肺止咳 調和諸藥

『本經』 “主五臟六腑寒熱邪氣 堅筋骨 長肌肉 倍氣力 金瘡腫 解毒”

『別錄』 “溫中下氣 煩滿短氣 傷寒咳嗽 止渴 通

經脈 利血氣 解百藥毒”

『藥性本草』“腹中冷痛 驚癇 除腹脹滿 補益五臟  
制諸藥毒 養腎氣內傷”

『日華諸家本草』“安魂定魄 補五勞七傷 一切虛  
損 通九竅 利百脈 益精養氣”

『用藥法象』“生用瀉火熱 熟用散表寒 去咽痛 除  
邪熱 緩正氣 養陰血 補脾胃 潤肺”

『本草綱目』“解小兒胎毒 驚癇 降火止痛”

### 3) 當 歸 =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腸通便

『本經』“婦人漏下絕子 諸惡瘡瘍 金瘡”

『藥性本草』“止嘔逆 虛勞寒熱 破宿血 主女子崩  
中 下腸胃冷 補諸不足 主女人瀝血腰痛 止痢腹痛”

『日華諸家本草』“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破惡  
血 養新血及癰癧”

『本草綱目』“頭痛 心腹諸痛 潤腸胃 筋骨 皮膚  
治癰疽 排膿止痛 和血補血”

『本草綱目』“潤燥滑腸”

『本草經百種錄』“辛香而潤 香則入脾 潤則補血  
故能透中焦營氣之分 而爲補營之聖藥”

『別錄』“溫中止痛 除咯血內塞 中風痙 汗不出  
濕瘡 中惡客氣 虛冷 補五臟 生肌肉”

『珍珠囊』“頭破血 身行血 尾止血”

『湯液本草』“頭止血 身和血 梢破血”

大補元氣 補脾益氣 生津 寧神益智

『本經』“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益智”

『別錄』“調中 止消渴 令人不忘”

『藥性本草』“五勞七傷 虛損瘦弱 止嘔噦 補五臟  
六腑 保中守神 治肺胃”

『珍珠囊』“肺胃陽氣不足 肺氣虛促 短氣 少氣  
補中 緩中 止渴生津液”

『用藥法象』“補肺中元氣 肺氣旺則 四臟之氣  
精血生而刑 自盛 肺主諸氣故也”

『本草綱目』“男婦一切虛損 發熱 自汗 眩暈 吐  
血 咳血 下血 血淋 血崩 胎前產後諸病”

### 4) 橘 皮 =

理氣健脾 燥濕化痰

『本經』“胸中瘕熱 逆氣 利水穀 久服去臭 下氣”

『別錄』“下氣 止嘔咳 療脾不能消穀 治氣沖胸中  
吐逆霍亂”

『藥性本草』“消痰涎 治上氣咳嗽 治胸膈間氣 開  
胃”

『本草拾遺』“去氣 調中”

『日華諸家本草』“消痰止嗽破癥瘕痃癖”

『本草綱目』“療嘔噦反胃嘈雜 時吐清水 痰痞 痰  
瘡 大腸閉塞 婦人乳癰 同補藥則補 同瀉藥則瀉 同  
升藥升則升 同降藥則降”

### 5) 升 麻 =

發表午疹 清熱解毒 升舉陽氣

『本經』“解百藥毒 辟溫疫 痘氣邪氣 蟲毒 入口  
皆吐血 中惡腹痛 時氣毒瘍 頭痛寒熱 風腫諸毒 喉  
痛口瘡”

### 6) 柴 胡 =

和解退熱 琉肝解鬱 升舉陽氣

『本經』“心腹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  
陳致新”

『別錄』“除傷寒心 下煩熱 諸痰熱結實 胸中邪逆  
五臟間游氣 六腸停積 水脹 濕痺拘攣”

『藥性本草』“熱勞骨節煩疼 热氣 肩背疼痛 宣暢  
血氣 勞乏羸瘦 下氣消食 時疾內外熱不解 單煮服”

『日華諸家本草』“補五勞七傷 除煩止驚 益氣力  
消痰止嗽 潤心肺 添精補髓 天行溫疾 热狂乏絕 胸  
脇氣滿 健忘”

『珍珠囊』“去往來寒熱 膽痺 非柴胡梢子不能除”

『滇南本草』“傷寒 發汗解表要藥 退六經邪熱往  
來 痢瘍 除肝家邪熱 痘熱 行肝經逆結之氣 止左肝  
氣引右疼痛 婦人血熱燒經 調月經”

『本草綱目』“陽氣下陷 平肝 膽 三焦 包絡相火  
及頭痛 眩暈 目昏 赤痛障翳 耳聾鳴 諸瘡”

及肥氣寒熱 婦人熱入血座 經水不調 小兒痘疹餘  
熱 五疳羸熱”

『本草從新』“宣暢氣血 散結調經 傷寒邪熱 痰熱  
結實 心下煩熱 諸瘡寒熱 頭眩嘔吐 目赤胸痞脹痛  
口苦耳聾”

## 7) 白朮 =

補脾益氣 滌濕利水 固表止汗 安胎

『本經』“風寒濕痺死肌 止汗 除熱 消食 痘痘”

『別錄』“消痰水 除皮間風水結腫 除心下急滿 及蓄亂吐下不止 利腰臍間血 益津液 嘴胃消穀”

『藥性本草』“胃氣虛冷下痢”

『日華諸家本草』“水氣 利小便 止反胃嘔逆 及筋骨軟弱 除煩長肌”

『珍珠囊』“除濕益氣 補中補陽 消痰逐水 生津止渴 止瀉痢 消脛濕腫”

## 8) 熟地黃 =

補血作用이 있기 때문에 血虛로 인한 月經不調 등 血虛症에適用하고 滋陰의 効能이 있으므로 腎陰不足으로 인한 骨症, 燥熱, 盗汗, 遺精, 消渴 効果가 良效하다

『本草從新』“滋腎水 利血脈, 補益真陰 聰耳, 明目 黑髮烏鬚 補脾陰 止久瀉 治勞傷風痹”

陰虧發熱 乾咳痰嗽 氣短喘急 胃中空虛覺餒 痘癰 心虛無體 痘後脛股產痛 產後 脘腹急疼

無汗便閉 諸種動血 一體肝腎陰虧 虛損百病 為壯水之主藥”

『本草綱目』“真骨髓 長肌肉 生精血 補五臟 內傷不足 通血脈 利耳目 黑鬚髮”

『珍珠囊』“補血虛不足 通血脈, 益氣力”

## 9) 鹿角膠 =

滋養性으로 益血補精 하며 肝腎을 補하는 作用을 하기 때문에 虛勞羸瘦나 腰膝無力 등을 다스리며 止血作用을 하기 때문에 陰虛로 인한 吐血, 鮎血, 崩漏 등을 다스린다. 神農 本草經新注에서 는 體溫을 增加시켜 體溫不適자로 하여금 升高하여 平溫에 이르게 하며 모든 神經系統의一切 不足한 證에 帶下여 滋補하는 作用이 있기 때문에 그 不足을 恢復하고 아울러 神經을 強壯케 할 뿐만 아니라 腰痛을 다스리고 體溫이 不足한 羸瘦에는 應用할 수 있으나 肺勞의 羸瘦에는 不適하며 交感神經을 強壯케 하고 心力を 強壯케 하며 卵巢 缺乏으로 인한 經閉에 帶下여는 能히 卵巢의 作用을 恢復케 하므로 婦人을 血閉無子를 다스린

다.

『本經』“傷中勞絕 腰痛羸瘦 補中益氣 婦人血閉無子 止痛安胎”

『別錄』“療吐血 下血 崩中不止 四肢酸疼 多汗淋露 折跌傷損”

『藥性本草』“男子腎臟氣衰虛勞損 能安胎去冷治漏下赤白 主吐血”

『醫學入門』“主咳嗽 吐血 咯血 噴血 尿血 下血”

『本草綱目』“炙搗酒服 補虛損 長肌益髓 令人肥健 脫顏色 勞嗽 尿精 尿血 瘡瘍”

以上의 構成藥物의 藥理作用을 통해 加味補中益氣湯은 脾胃가 衰虛하면 肺氣가 끊어지는 고로 黃芪를 써서 皮毛를 補益하여 膜理를 繁閉하여 自汗이 排泄되지 못하게 하고 喘息氣短하여 元氣가 消耗된 것을 人蔘으로 補하고 心下가 脾를 承한 症은 甘草가 甘溫한 性味로 火熱을 滬하여 胃中の 元氣를 보한다. 이 三味의 약은 濕熱과 煩熱을 除하는 要藥이다. 白朮은 苦甘溫을 兼하여 溫中의 热을 降하고 腰·臍間의 穴을 利하게 하며, 升麻, 柴胡는 淡泊한 苦平味로 胃中の 清氣를 升提하고, 또 黃芪 甘草의 甘溫한 氣味를 끌어서 上昇시켜 능히 胃氣의 解散을 收補하며 그 表를 實하게 하며 또 帶脈의 縮急을 緩和시키며 當歸로 써 血壓을 和하게 하며 橘紅으로 胸中の 氣를 和平하게 하며 陽氣의 上昇을 도와서 滯氣를 解散하는 것이다. 무릇 脾胃가 不足한 症은 升麻 柴胡를 써서 脾胃中の 清氣를 끌어서 陽道와 諸經을 運行하게 하며 陰陽의 氣를 發生시키는 故로 脾胃를 다스리는 方名을 升陽補氣 등으로 稱하는 것이다. 여기에 熟地黃과 鹿角膠가 들어가 补血 补陰을 하여 脾胃虛弱으로 인한 氣血生化之元이 不足하여 생기는 子宮下垂를 治할 수 있는 것이다.<sup>24~27)</sup>

## 3. 結論

現代社會에서 職場女性의 比率이 늘어나면서 出產後 早期活動과 ダイエット로 인한 營養缺乏, 偏食, 公害飲食, 스트레스로 인한 氣血不足 등이 子

宮脫을 일으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子宮脫은 그 정도에 따라 1, 2, 3도로 나누며 2도 이상의 子宮脫은 外科的 手術의 대상이 되며 子宮頸部가 腹내에 있는 1도의 子宮下垂가 한방치료의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子宮下垂는 身體虛弱, 中氣不足하거나 혹은 分娩시 用力過多하거나 혹은 產後에 體力消耗가 많았을 때 혹은 便秘로 인해 힘을 많이 쓴 경우로, 氣虛下陷으로 胞系無力하여 子宮下垂에 이르게 되거나, 產育過度하거나 房事所傷으로 腎氣가 耗損되어 帶脈이 約束하지 못하고, 衝任脈이 堅固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또한 子宮下垂의 根本原因是 血의 形成과 매우 關聯이 깊다. 血의 形成은 先天腎氣와 後天脾胃에 根本 하고 있다. 만일 六淫의 외침과 七情의 內傷 및 飲食과 過度하게 労動을 하는 등의 原因으로 脾胃가 損傷 되어 血의 生產의 發源地가 虛弱해지면 子宮下垂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治療에 있어서 脾胃가 氣血生化之源인데 脾胃가 虚弱해서 일어나는 中氣下陷과 氣血不調가 일어나서 생길 수 있는 子宮下垂에 加味補中益氣湯을 활용할 수 있다. 加味補中益氣湯 中에 黃芪는 補肺固表 補氣하므로 君으로 하고 人蔘 白朮 甘草는 甘溫하여 益氣 補脾 和中薦火 하므로 臣으로 삼고 當歸는 佐藥으로 和血養陰하며 升麻는 陽明의 清氣를 升하고 柴胡는 少陽의 清氣를 升하여 陰濁自降하고 陳皮는 氣機를 調理하고 熟地黃은 補血滋陰 腎水不足 生精血 補五臟 通穴脈 益氣力의 效力이 있고 鹿角膠는 滋養性으로 益氣 補精하며 肝과 腎을 補하고 崩漏 및 止血作用이 있으며 腰膝 無力を 다스리므로 加味補中益氣湯으로 安胎去冷 止痛安胎 令人肥健하여 赤白帶下 血閉無子 등 婦人의 氣血虛症으로 인한 모든 症狀에 적합하고 특히 氣血 虛弱으로 인한 子宮下垂症 適合한處方으로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Novak ER. Textbook of Gynecology. 11th ed. William & Wilkins Co. 1988.
2.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 1978. pp. 264~265. pp. 266~267
3. 새임상 부인과학, 고려의학, 2001. p. 365
4. 巢元方 :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129, pp. 1223~1224
5. 方廣 : 丹溪心法附餘,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 751
6. 龔廷賢 : 萬病回春, 香港, 香港宇宙出版公司, 1985. p. 371, 375
7. 李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0. pp. 109~110
8.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4. pp. 258~259
9.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p. 318, 621
10. 沈堯封 : 沈氏 女科輯要, 台北, 旋風出版社, 民國66. p. 550, 582
11. 白洪龍 : 常見病症 變症 診治概要, 昆明市雲南人民出版社, 1984. p. 217, pp. 454~456
12. 婦產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6. pp. 151~157
13. 武之望 : 濟陰綱目, 台北, 旋風出版社, 1972. p. 217, pp. 227~230
14. 姜明孜 : 臨床婦產科學, 서울, 成輔社, 1989. pp332~334
15. 柳同烈陰외 : 陰挺·陰脫에 관한 文獻的 考察,
16. 陳自明 : 婦人良方大全, 서울, 金泳出版社, 1975, pp50~51
17. 萬全 : 萬氏婦人科, 湖北, 湖北人民衛生出版社, 1983. p43
18.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78. p739
19. 程國彭 : 醫學心悟, 香港, 友聯出版社, 1961. pp267~268
20. 吳謙 : 醫宗金鑑, 婦科心法要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10~111
21. 林?? : 類證治裁, 台北, 旋風出版社, 1958. p550, 582.
22.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史, 1983, pp35~37, pp86~87
23. 서장원 : 補中益氣湯服用의 筋力 및 呼吸循環機能에 미치는 影向,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1

24. 尹吉榮 : 東醫方劑學, 서울, 古文社, 1964,  
p145, 170, 176, 212, 295
25. 孟華燮 : 方藥指針, 서울, 南山堂, 1983,  
p46, 87, 108, 336, 423, 633, 679
26. 辛民教 : 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1986,  
p166, 167, 172, 173, 175, 176, 177, 186,  
219, 221, 222, 380, 538, 540
27. 黃度淵 :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77,  
p143, 144, 119, 121, 122, 128, 138, 142,  
147, 175, 267, 324